

2 뉴스

“위안부 자발적 매춘” 철학과 교수의 발언 파장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지난해 철학과 수업에서 역사 왜곡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최정식 교수(철학과)가 올해에도 비슷한 발언을 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철학과 전공기초 과목인 ‘서양철학의 기초’에서 “고종 황제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다”며 “일본은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수는 지난해 모 언론사를 통해 논란이 되는 발언을 철회한다

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최 교수의 발언은 올해도 계속됐다. 최 교수가 지난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자발적인 매춘”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이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수업을 들었던 정유찬(철학과 2023) 씨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공적인 대학 수업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에도 변화 없이 과 분위기만 뒤숭숭했던 전례때문에, 공론화하기를 지양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러냈다.

최 교수의 발언에 분노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이서정(철학과 2023) 학생은 “교수님의 발언에 많은 학생들이 분노했고, 수강을 취소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교수를 신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22학번 선배들이 나서 중재해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철학과 소속 A 씨는 “작년에 공론화되었음에도, 바뀌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난다”며 “교수님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수업 시간에 여쭙봤지만,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민감한 문제라며 말을 아끼셨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논란의 당사자인 최 교수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아는 것이 철학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유독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견해가 사실 마냥 유통되는



문과대학 전경 (사진=서세종 기자)

현실이 안타깝고 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최 교수는 “1992년 한 일본인 공산주의자가 신문에 자신이 강점기 시절 제주도 여인들을 연행해 정신대로 보냈다는 주장 이후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이후 조사 결과 제주도에서 그런 일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위안부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져 일제시대 공공연하게 인정된 공창 중 하나라 보는 것이 적절

하다”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발언을 철회한 이후에도 다시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내가 독창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남이 한 주장을 내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스워 발언 철회를 한 것”이라며 “지금도 내가 한 주장을 참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확신했다.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절차는 없는 상태다.

한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는 대학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졸업생 GPA(평균평점) 소폭 상승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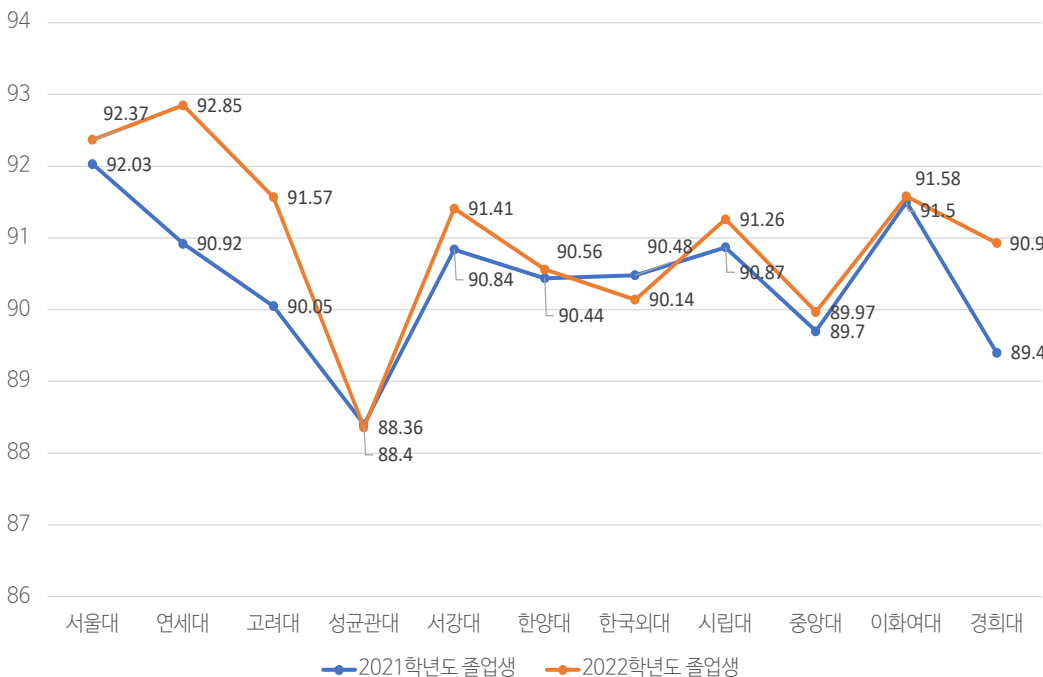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학교 졸업생의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의 평균이 재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서 공시한 ‘대학별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우리학교의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의 평균은 90.93점이다. 이는 2021학년도에 89.4점이었던 것에 비해 1.53점 상승한 점수다.

이러한 우리학교의 졸업생 졸업 백분율 점수의 상승 양상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진다. 2022학년도 졸업 백분율 점수에서 2021학년도 졸업 백분율 점수를 뺀, 서울권 11개 대학의 최근 2년간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 차는 ▲서울대 0.34 ▲연세대 1.93 ▲고려대 1.52 ▲성균관대 -0.04 ▲서강대 0.57 ▲한양대 0.12 ▲한국외대 -0.34 ▲시립대 0.39 ▲중앙대 0.27 ▲이화여대 0.08이다. 이 중 1.5점 이상 상승 폭을 보인 대학은 우리학교와 연세대, 고려대뿐이다.

90점 이상 100점 이하의 평점으로 졸업한 학생 비율 역시 전년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 대학알

서울권 11개 대학 졸업생 졸업 백분율 점수



서울권 11개 대학 졸업생 졸업 백분율 점수(출처: 대학알리미)

리미 공시 자료는 95점 이상 100점 미만,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등 5점 급간의 구간으로 평점별 학생 수 및 비율을 나누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2022학년도에 90점 이상 100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졸업생 비율은 2021학년도에 비해 10.5%p 증가한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에 95점 이상 100점 이하 구간의 졸업생 비율은 7.9%이나, 2022학년도에는 24%로 16.1%p 증가했다. 반면 90점 이상 95점 미만 구간의 졸업생 비율은 2021학년도에는 44.6%에서 2022학

년도에는 39%로 크지 않은 하락 폭을 보였다. 따라서 95점 이상의 높은 졸업 백분율로 졸업한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졸업 백분율 점수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상에는 지난해 이뤄진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학교는 작년 8월부터 개정된 GPA 환산식을 적용, 3.7/4.3학점 기준 GPA 백분위 환산 점수는 기존 93에서 개정 후 94.83로 1.83점 올라갔다. 이에 따라 평점평균 3.7/4.3(4.0/4.5) 기준GPA 백분위를 서울권 10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

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시립대, 중앙대, 이화여대)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는 두 번째로 높은 환산점수를 산출하게 됐다. (관련기사: GPA 백분위 법전원 입시 바로 적용/대학주보 제1688호(2022.09.01))

올해부터 개편된 학점표준화 제도로 인해 당분간 졸업 백분율 점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수강 인원의 40% 이내에 B+ 이상의 학점을 부여했으나, 올해 1학기부터 새롭게 적용된 학점표준화 제도에서는 45% 이내의 수강 인원 A- 이상의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2,062명 학사 학위 수여

한주현 기자 1hji@khu.ac.kr

2022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이 지난 16일 양 캠퍼스(양캠프)에서 열렸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으며,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선승관에서 개최됐다.

서울캠에서는 학사 965명이 학위를 받았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 단과대학은 경영대학으로 262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이어 정경대학 233명, 호텔관광대학 152명, 문과대학 126명, 이과대학 68명, 생활과학대학 56명, 음악대학 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캠에서는 학사 1,097명이 학위를 받았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 단과대학은 예술디자인대학으로 203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이어 공과대학 190명, 외국어대학 147명, 전자정보대학 125명, 응용과학대학 123명, 생명과학대학 91명, 체육대학 88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78명, 국제대학 50명 등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학위수여식 전용 홈페이지(<http://commencement.khu.ac.kr>)에 학장, 동문을 비롯한 단과대학별 축하인사 영상이 게시됐다.